



일 일 벤처 체험

# KIBO 기술보증기금

## 벤처이노비즈팀

기술벤처

에

날개를

달아준다



기술을 평가하고, 기술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2006년부터는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벤처·이노비즈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 중이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전담 부서인 벤처이노비즈팀에서는 벤처인증 및 벤처 지원정보, 벤처 투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벤처포털 <벤처인 [www.venturein.or.kr](http://www.venturein.or.kr)>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벤처이노비즈팀을 찾아 그동안 궁금했던 벤처 정보의 A부터 Z까지 알아본다.

## “벤처인 사이트를 아시나요?”

밝은 목소리로 취재진을 맞이하는 기보 벤처이노비즈팀 류혜란씨. 그리고 미소가 상쾌한 오늘의 체험자 회사원 이진주씨. 혜란씨와 같이 운동을 하다 친해졌다는 그녀가 오늘 우리나라의 기술금융과 벤처지원을 책임지는 기술보증기금 벤처이노비즈팀 체험에 함께 해줄 분이란다. 두사람은 이미 부산우체국 4층부터 6층까지 위치한 벤처이노비즈팀과 기보의 곳곳을 즐겁게 체험할 준비를 마친 상태. 이제부터 시작이다.

## 벤처기업인들의 종합 백과사전, 벤처인



벤처이노비즈팀에서는 ▲벤처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이노비즈 선정 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벤처재기보증제도 ▲기술거래, M&A업무 ▲망 기술기업 직접투자 및 주식연계보증 기획운영 ▲벤처창업교실 ▲BI 관련 업무 ▲전자상거래보증기획 및 운영 총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정도면 벤처에 닿아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안내역할을 맡은 류혜란씨는 벤처인 안내를 위한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코너를 담당하고 있다. 취재중에도 수시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혜란씨. “주로 어떤 문의전화가 오느냐”는 진주씨의 질문에 특유의 기분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준다. “벤처인 사이트를 모르셔서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요, 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역시 벤처인증과 연장에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지요. 아침! 콜센터 번호는 1577-0270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벤처확인을 전담하는 기관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세 곳이 있으며, 실제 70%정도의 벤처인증이 기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벤처인증을 받기위한 첫 번째 창구가 바로 벤처인 사이트이다. 벤처인에서는 벤처확인신청, 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뿐만 아니라 벤처확인서 발급 등 벤처 확인관련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벤처인증 및 정보습득의 백과사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벤처인이 오픈한 지 딱 1주년이 되었습니다. 벤처인은 벤처에 관련된 분들, 벤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와 커뮤니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해 더 편하고 더 편리하게 벤처확인·정보시스템 벤처인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벤처인의 오픈부터 한돌을 넘긴 지금껏 업무를 전담해 온 엄평식 차장의 믿음직한 말이다.

이번에는 진주씨를 위한 미니 벤처인 회의가 열렸다. “혜란씨가 전화상담으로 벤처인 안내를 많이 하던데요, 벤처인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진주씨의 진지한 질문에 “중소기업 유관기관에 링크 및 배너 광고를 진행해, 벤처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픈 1주년 기념, 벤처인 회원 대상으로 퀴즈이벤트도 진행했었지요.” 마케팅 파트의 박노철 차장이 답한다.





“그럼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사이트인가보네요?” 라고 연이어 묻는 진주씨의 물음에 이번에는 박춘주 파트매니저가 꼼꼼하게 답한다. “물론 벤처기업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은 기본이지요. 덧붙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도 중요한 벤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도 실질적이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벤처투자기업, 이달의 벤처기업 등 우수 벤처기업의 IR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서로 투자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지요.”

실제 벤처인에서는 벤처정보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인데, 벤처에 관한 일반정보 및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정보, 투자금액, 시기 등의 투자정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등의 벤처 정보를 DB화 하였으며, 이용자의 조건을 감안하여 상호, 대표명, 지역, 업종등 검색기능을 추가 맞춤형 정보제공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벤처이노비즈팀을 살살이 훑어본 두 미녀의 쉬어가는 커피타임. 부산향이 보이는 시원한 옥상에서 웃음을 피운다. “정말 벤처인은 지식in 못지 않은 친절하고 똑똑한 서비스인거 같아요, 게다가 헤란씨 같이 친절한 직원도 있고 말이죠.” 이진주씨의 칭찬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기보 벤처이노비즈팀원 모두가 우리 벤처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며 성실한 미소를 짓는 헤란씨. 이번엔 헤란씨를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다른 부서와 시설들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술보증기금

먼저 들른 곳은 체력단련실. 기술보증기금 본사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 200여 명. 주로 업무시간 전인 아침시간에 이용객이 붐빈다고 한다. 요가를 배우며 만나게 된 두 사람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들은 사이클을 타며 즐거운 한 때를 가졌다. 이어 바로 옆방으로 가니 기보 도서관이 있다. 홍보팀의 김명선씨가 친절하게 이들을 맞아준다. “기보 도서관에는 14,0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접수받고, 개인 컴퓨터에서 원하는 도서의 예약도 가능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기보에서는 체력단련실과 도서관, 휴게실 운영 이외에도 테니스, 등산, 사진 등 20여 개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의 만족도와 지덕체 지수를 높이고 있다.

부러운 표정의 진주씨를 이끌고 헤란씨가 향한 곳은 기술보증기금의 핵심업무,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부산기술평가영점이다. 이번에는 김의철 부산기술평가팀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기술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

“기보에서는 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평가서’를 발급하는데요. 전국에 53개 영점들이 있고, 부산영점에도 20여 명이 기술평가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고 전문화된 기술평가를 위해서 자체전문인력 미확보분야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높은 대외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보에서 기술평가 및 보증 이외에도 기술·경영자문 등 각종 지도업무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에 진주씨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하려면 기술보증기금이 없어서는 안 되겠어요. 기술금융이란 말이 제대로 기보의 정체성을 설명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어렵פות이나마 알 것 같다는 진주씨가 마지막으로 이동한 곳은 대회의실.

들어가지마자 큰 스크린과 일렬로 쭉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로, 수시로 부산 본사-전국 영업점은 물론 국회, 기획예산처 등을 연결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하니 업무지장도 줄고 불가피한 출장도 많이 줄어들었다.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의 수도권집중이 일반적인 국내현실상 부산이라는 지역적 핸디캡을 줄여주는 경제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어서오세요” 라며 그녀를 반기는 홍보팀의 허종필 차장. 명쾌하게 기보의 역사와 핵심업무, 기술금융의 미래라는 비전까지 설명한다. “오늘 기보의 이곳저곳을 체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기술보증기금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저력을 믿고, 그 가능성을 꽃피우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기관이지요.” 기보는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출발 신용 측면에 집중한 보증업무를 해오다, 99년부터 ‘기술평가보증’을 시작하여 현재 크게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업지원을 수행중이다. ‘기술평가’라는 키워드로 타 보증기관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기업현장에서 뛰어온 기보는 이제, 명실공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장 유익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오후 한나절, 벤처이노비즈팀을 포함한 기술보증기금의 이곳저곳을 살펴본 이진주씨. 시종일관 즐겁고 상냥하게 기술보증기금을 안내해준 헤란씨가 체험 소감을 묻자 “그저 친한 동생의 회사에 놀러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끝나고 나니 많이 배우고 가는 기분입니다”라며 만족한 웃음을 짓는다.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할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기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해 기업에 도움을 주신다니 정말 중요한 업무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네요.”

벤처인,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운영에 날개를 달아주는 노력은 앞으로도 벤처와 이노비즈를 아우르는 혁신형중소기업의 견인차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